

과녁 없이 화살을 쏘지 말라

(사도행전 19:23-40)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전입니다. 신전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 이상 거대하게 건축된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신전은 3천 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합법적으로 매음을 행하고 있었고 수만 명의 신전 노예가 상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신앙은 종교를 넘어 막대한 규모의 도시 경제 산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신전 자체에 은행이 운영될 정도로 참배객들을 상대로 숙박업과 음식점이 번성했고, 그중에서도 은세공업자들은 가장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직공과 영업사원을 거느리며 크고 작은 신상을 제작했고, 사람들은 집 벽을 파서 작은 신상을 모실 정도로 숭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이 거대한 산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전 중심의 거대 경제 생태계를 향한 직접적인 도전포고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은세공 조합장 데메드리오는 직공과 시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분노는 여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유함과 경제적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돌을 깎아 만든 조각상이나 기괴한 분위기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집어삼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풍족한 생활을 앞세우고, 안락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가 영혼을 쪼먹는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선동된 에베소 군중은 아르테미스를 부르짖으며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광기를 뿜어냈지만 정작 군중의 절반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무의미한 구호만 외쳤습니다. 이때 도시의 서기장이 등장하여 이들이 신전 기물을 훔치거나 여신

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중재했습니다. 고발할 사안이 있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며, 명분 없는 집회는 오히려 불법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군중은 순식간에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대중의 실체는 이처럼 무지하고 허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무지하지 않고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방인들이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허망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고 망령되다는 뜻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표적도 없이 허공에 화살을 쏘아대는 무의미한 행위와 같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살아있기에 그저 연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생을 바쳐 뼈빠지게 고생하고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공에 날린 화살처럼 허무하게 끝납니다. 반대로 거친 파도 속이나 척박한 광야 동굴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자기 화살로 태양을 떨어뜨려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오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처럼 몹시 초라한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반대로 주시지 않은 것은 남들과 비교하여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추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형편없는 조건이 화를 면하게 하는 방패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해 자신의 힘으로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려 발버둥을 치다가 필연적으로 헛되고 망령된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려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행동 속에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역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고통을 겪더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 질병의 치유 같은 눈앞의 조건에만 기쁨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진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반인반조의 세이렌은 치명적인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채우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듣고 미칠 듯한 충동에 사로잡혀 풀어달라며 선원들을 협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록 목숨은 건졌으나 유혹에 직접 노출되며 영혼에 깊은 상처와 극심한 정신적 피폐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자신을 묶거나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세이렌의 매혹적인 소리가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리라(수금)를 꺼내어 세이렌의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의 내면에 채워져야 할 위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만의 영적인 노래가 없으면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연극장의 군중처럼 삶의 기반을 불안정한 사람의 인정에 두는 자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성공한 세상 권력자나 유명인들이 종종 광기와 불안에 시달리며 대중을 속이고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환호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진리의 뜻대가 없어서 공포와 우울감 사이를 오가며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현재 겪는 고난과 아픔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거룩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연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다윗에게 광야를 건디게 한 말씀과 눈물의 노래가 있듯, 우리의 영원한 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을 노래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